

광주 3위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

전남 꼴찌

전국 문화향수 실태조사

각각 76.1%·52.2%
영화 1위·대중음악 뒤이어
티켓 구입 '광역시 최하위'



광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영화, 대중음악, 미술 순이었다. 사진은 '2014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인 트리날리니 무케르지 작가의 '수목생성'. <광주일보 자료사진>

■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순위	지역	관람률	순위	지역	관람률
1	인천	78.9	10	대전	67.7
2	서울	77.5	11	충남	67.5
3	광주	76.1	12	경남	66.3
4	경기	74.4	13	경북	64.0
5	부산	72.8	14	세종	61.6
6	충북	72.1	15	강원	58.5
7	울산	70.3	16	전북	58.2
8	대구	70.2	17	전남	52.2
9	제주	67.9		전국	71.3

광주 시민들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문화예술 행사를 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도민들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전국 꼴찌였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표된 '2014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시민들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76.1%로 인천(78.9%)과 서울(77.5%)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경기(74.4%), 부산(72.8%), 충북(72.1%) 순으로 조사됐으며, 전남은 52.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71.3%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예술 행사 참여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70%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69.6% 대비 1.7% 늘었다.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매 2년마다 조사한다. 올해는 지난 8월1일~9월12일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 이상 남녀 1만명을 방문·면접 조사했으며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등

9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광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관람한 문화예술 분야는 68.6%를 차지한 영화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대중음악(26%), 미술(10.5%), 전통예술·연극(7.9%), 문학(7.7%), 뮤지컬(7.5%), 서양음악(7.1%) 순으로 조사됐다. 무용 관람률은 1.5%에 그쳤다.

특히 대중음악 관람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문학(전국 평균 6.2%), 서양음악(" 4.9%), 영화(" 65.8%), 전통예술(" 5.7%) 관람률도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광주는 상대적으로 초대권 관람과 무료행사 관람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4.2%, 3.4%로 모두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고, 반면 입장권 구입 비율은 92.4%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전남 도민들이 가장 많이 관람한 문화예술 분야도 영화(46.4%)로 조사됐다. 이어 대중음악(7.4%), 전통예술(4.9%), 미술(3.5%), 연극(3%), 문학(2.8%), 뮤지컬(2.4%), 서양음악(1.7%), 무용(0.7%) 순이었다. 전남

도민들의 분야별 관람률은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관람방법별 비율은 입장권 구입(90.9%)이 가장 많았고, 무료행사(7.2%), 초대권 관람(1.9%) 순으로 나타났다. 초대권 관람비율은 경북(1.1%)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문화예술 행사 교육 경험률은 광주 6.8%, 전남 4.6%로 각각 전국에서 7번째, 12번째로 나타났다. 강원 21.7%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 10.3%, 인천 10%, 서울·경기 8.3%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9%)과 경남·전북(2.1%)이었다.

한편 이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 600만원 이상 가구 관람률은 84.8%로 가장 높았고, 100만~200만원 가구는 43.7%, 200만~300만원 가구는 68.7%로 조사됐다.

또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한 이들의 비율은 지난 2012년 대비 1% 오른 4.7%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노부스콰르텟.

유·스퀘어문화관 "내년도 기대하세요"

금호아트홀 '노부스콰르텟' 등 실내악 리용 콩쿠르 2위 김민준 피아노 독주 동산아트홀·금호갤러리 전시·공연도

지난 2009년 문을 연 유·스퀘어문화관은 클래식 전용홀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다. 특히 권혁주, 이상 앤더스, 김다솔 등이 다녀간 금호아트홀 공연은 지역 클래식 애호가들이 가장 기다리는 기회이다. 2015년 공연 라인업이 금급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5년에는 금호아트홀에서 다양한 실내악 연주를 만날 수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가 이끄는 '칼리스트 스트링 콰르텟',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피아노 트리오 '제이드', 목관5중주의 환상적인 조화가 돋보이는 '뷰에르 앙상블',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실내악 팀 '노부스콰르텟' 등이 공연한다.

'노부스 콰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승원과 그의 스승인 조명희가 함께하는 '비올라의 계보', 같은 팀의 리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독주회, 심준호·최주연·김재영 등 젊은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이어진다. 금호주니어 콘서트 출신으로 올해 열린 프랑스 리용 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한 피아니스트 김민준(서울대 4년)의 독주회도 예정돼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금호주니어콘서트는 오는 2월 27~28일 오디션을 통해 연주자를 선발하며 7월~8월 데뷔 무대를 갖는다.

동산아트홀에서는 'Good공연 시리즈'가 이어진다. '그녀를 만지 마세요'를 2월말까지 공연하며 1년간 모두 6작품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금호갤러리에서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유·스퀘어 청년작가 공모 수상작전이 열릴 예정이다. 선정 작가는 김병균, 류 신, 문선희, 박성완, 박정일, 이다예, 장근영, 장원석 정다운, 조강수씨다. 한편, 유·테라스 야외 갤러리에서는 시민사진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중이며 2015년에도 3월과 9월 두차례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스퀘어문화관이 뽑은 2014년 10대 뉴스는 ▲문화가 있는 날 유·스퀘어음악회▲금호주니어 콘서트▲광주학생연극제 후원▲금호갤러리 청년 작가 지원▲아트 컴퍼니와 진행한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활발해진 문화 나눔 실천▲문용휘·이효주·조진주·이상 앤더스 등 젊은 비르투오소와의 만남▲'내 아내의 모든 것' 등 '굿 공연 시리즈'▲시민 갤러리를 만든다▲'유·스퀘어 사진 공모전'▲자신이 보낸 편지를 1년 후 받아볼 수 있는 '느린 우체통'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

'달궁'으로 읽는 서정인의 소설세계

김미자 박사, 연구서 펴내
순천 출신 작가 서정인의 소설을 미려한 문체로 갈무리한 책이 나왔다. 조선대 강사인 김미자 박사가 펴낸 '달궁으로 읽는 서정인의 소설세계'는 파격적인 문법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보여

준 서정인의 작품을 분석한다. 서정인의 대표작 '달궁'은 4유보 운율을 정지하게 살려낸 소설이다. 인물들은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사실시조를 패러디하거나 관소리 사설을 자유자재로 구현해낸다. 작가가 연작소설 형식으로 '달궁'을 형상화한 것은



근대소설의 여명기에 자취를 감춘 이야기꾼의 새로운 등장과 무관치 않다. 김씨는 '스타 일리스트'로 지칭되는 서정인의 소설에 갖는 이야기 특징,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서술 방식에 주목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정인의 이야기체 소설 방식이 '리듬'에서 출발한다는 점과 이 리듬이 운율을 살려낸 글쓰기로 수렴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저자는 "근대 소설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야기꾼이 서사와 청자를 매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서정인 소설의 형식 실험을 망라한 '달궁'을 통해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았다"고 말한다.

<역락·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으로 본 한국

'문학들' 겨울호 나와

'무엇을 할 것인가' 대참사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 질문은 변함없는 화두다. 전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토대로 계간 '문학들' 겨울호(통권38호)가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보았다.

조정환 연구자가 "자본론"의 현재적 의미를 주제로 자본의 역사와 변화를 짚어보고 김영웅 박사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한 소고'를 통해 피케티의 논의를 일곱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분석한다.

윤인로 연구원은 '총파업, 절대전쟁, 산파-



'순수한 수단'의 개발트들'에서 신정정치로서의 자본에 대한 비판을 총파업이라는 폭력적인 측면에서 다룬다.

사물'들'에서는 이기호 작가가 '어떤 웃음은 두려움에서 나온다'를 주제로 특유의 익살과 맛깔스러운 문체를 선보이며 이야기'들'에서는 독립영상 제작을 하는 이정식씨가 '4는0이다'를 주제로 성적 소수자의 담론 등을 이야기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결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아담카페식당 동구천변로 405-101 천변리(신주우에서클박스쪽) 오리로스, 오리불고기, 삼겹살, 목살, 주물럭 대표 김성훈 ☎062)224-0102	미정 동구 금남로2가(구)동구청뒤 옛날구미향 계절생선회, 일식전문 대표 김봉식 ☎062)236-3177	무등공인중개사 북구 문흥동 938-4 주공1차2차트래파트건너편 아파트, 주택, 상가건물, 분양권 매매매대 전문 대표 권덕우 ☎010-9222-3339	그레이아웃가게 동구 황금동 91-1 강석빌딩지하 콜박스사거리 여성리류 소품물 잡화전문점 ☎062)225-4150	아워홈테크 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세iK 제휴점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썬크대 붙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	우리밀빵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E동 51호(분수대빌딩부근) 공정무역, 유기농커피 사회적기업 대표 박연옥 ☎062)222-1151
골든보석 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축산농협건너편 예물귀금속전문점 대표 김춘복 ☎062)512-8100 ☎011-624-9200	골든전당포 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축산농협건너편 귀금속 전당 고급시계 전당 대표 김춘복 ☎011-624-9200	신신예술의집 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축산농협건너편 예물귀금속전문점 대표 김춘복 ☎062)512-8100	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건너편 오리한방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웃닭, 오리장어탕 ☎062)401-5253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장충동왕족발보쌈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족발 소, 중, 대 보쌈김치 신속해매달카트결재가능 ☎1588-3300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다나베움므 동구 남동 169-4 (충장로1가입구인속촌역) 호남최고 맛춤정장 결혼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호선갤러리 동구 예술의거리10번지 미술품전시및대관 대표 부영진 ☎010-5680-118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9655-7765	거금조경 북구 두암동 미라보아파트 사거리 옴즈주스맛있편 굴취, 전지, 식재, 벌초, 산일, 이장 예초정원자연석사주 대표 소정택 ☎062)268-7709